

사 진 자 료



<(왼쪽)현종어보, (오른쪽)문정왕후어보>



<(앞)문정왕후어보, (뒤)현종어보>



문정왕후어보(문정왕후 상존호 금보)

文定王后 上尊號 金寶

조선, 1547년(명종 2) 처음 제작, 1554년(명종 9) 재제작

동에 도금, 2017년 환수

중종中宗(1488~1544년, 재위 1506~1544년)의 계비繼妃 문정왕후(1501~1565년)의 어보이다. 보면寶面에 ‘성렬대왕대비지보聖烈大王大妃之寶’를 구첩전九疊篆(글자의 획을 여러 번 구부려 쓴 서체)의 서체로 새겼다. ‘성렬聖烈’은 문정왕후가 대왕대비였던 1547년 1월 26일에 올린 첫 번째 존호이다. 같은 해 9월 21일 ‘인명仁明’이라는 두 번째 존호를 올릴 때 만들었던 어보를 포함하여 문정왕후의 보, 옥책, 교명 등이 1553년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이듬해인 1554년에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『명종실록』에 전한다. 환수된 어보는 이 때 다시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. 재질은 동에 금도금을 하였고 손잡이는 거북 모양[귀뉴龜紐]이며, 거북의 배 밑으로 꿰었던 매듭 끈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.

문정왕후의 어보는 모두 3과顆로 상존호, 가상존호, 상시호 금보이며 종묘 정전 제6실 중종실에 봉안되었다. 함께 제작했던 옥책은 전하지 않는데, 1705년(숙종 31) ~ 1789년(정조 13)에 작성된 『종묘등록宗廟謄錄』에 “금무今無”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잦은 화재와 임진왜란 등을 겪으면서 이미 분실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.

(우측 사진)보면 : 聖烈大王大妃之寶



현종어보(현종 왕세자책봉 옥인)

顯宗 王世子冊封 玉印

조선, 1651년(효종 2)

옥, 2017년 환수

1651년(효종 2) 조선 제18대 왕 현종顯宗(1641~1674년, 재위 1659~1674년)을 왕세자에 책봉하면서 만든 어보이다. 왕세자 책봉 시 인면印面에는 ‘왕세자인王世子印’ 네 글자를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데, 현종어보에는 ‘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’이라는 다섯 글자를 구첩전의 서체로 새겼다. 『[현종]왕세자책례도감의궤』에 “왕세자책봉 옥인의 전문은 왕세자지인 다섯 글자를 전각하였다”는 내용과 현종어보의 도설이 실려 있다.

재질은 옥玉이고 손잡이는 거북 모양[귀뉴龜紐]이며 붉은 매듭 끈이 달려있다. 현종의 보인寶印은 왕세손 책봉 때와 왕세자 책봉 때, 그리고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 제작하여 모두 4과가 종묘 정전의 현종실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하나 모두 분실되어 한 과도 남아있지 않았다. 이번에 환수된 현종어보는 현전하는 유일한 것이다. 책봉 시 어보와 함께 만들었던 죽책竹冊, 교명敎命은 유출되지 않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. 어보의 귀환으로 현종 세자 책봉 시 책보冊寶 일습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.

(우측 사진)인면 : 王世子之印